

카카오, 계열사 30% 축소하고 ‘AI·톡 결합’ 차세대 서비스 집중

2년 만에 계열사 142개 → 99개
이달 말 ‘챗GPT 포 카카오’ 선포
주주가치 제고 등 책임경영 강화

카카오가 2년 만에 계열사 30%를 감축하며 ‘인공지능(AI) 중심 경영체계’로 전환을 마무리했다.

카카오가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재무 체질 개선을 통해 ‘AI 중심 경영체계’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신아 대표는 13일 공개한 주주서한에서 “현재 카카오 그룹 계열사는 99개이며, 연말까지 80여 개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CA협의체 사업총괄로 취임했을 당시 142개였던 계열사를 2년 만에 30% 이상 축소할 셈이다.

정 대표는 이번 조치를 “AI 시대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카오는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 증가한 1859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특비즈니스 성장과 계열사 구조조정 효과가 맞물리며, ‘작지만 강한 카카오’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AI와 카카오톡을 결합한 차세대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카카오 25’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카오

고 있다. 10월 말 출시되는 ‘챗GPT 포 카카오’는 별도 앱 없이 카카오톡 채팅 탭에서 챗GPT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어 출시되는 온디바이스AI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자체 경량 모델 ‘카나나 나노’를 활용해 스마트폰 안에서만 작동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는 MCP(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와 에이전트 AI 플랫폼을 통해 외부 서비스를 AI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생태계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 대표는 “모든 이용자가 카카오톡 안에서 AI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주주가치 제고 ▲AI 인재 양성 ▲소상공인 지원을 축으로 한 ‘책임 경영’ 기조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총주주수익률(TSR) 연계 보상체계를 전 임원으로 확대했고, 향후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원과 함께 AI 인재 육성 및 창업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통합지원 TF’를 신설해 파트너 기업의 성장 기반을 돕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비용 효율화를 병행하며 미래 성장에 집중할 재무 구조를 마련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AI와 카카오톡의 결합을 통해 또 한 번의 일상 혁신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카카오프렌즈, 서울 도심 속 가을축제 연다

한강 드론쇼·바비큐 페스타 참여
IP 활용 드론쇼·포토존 등 운영

카카오프렌즈가 서울시와 함께 가을 맞이 한강 드론쇼·바비큐 페스타를 열어 도심 속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카카오는 캐릭터 브랜드 카카오프렌즈가 가을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한강 드론 라이트쇼와 서울 바비큐 페스타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서울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심형 축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강 드론 라이트쇼는 오는 18일 저녁 8시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다. 1200여 대의 드론이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IP를 활용해 가을 피크닉을 즐기는 라이언과 춘식이 등 다양한 이미지를 하늘 위에 구현한다. 음악과 함께 연출되



카카오프렌즈가 서울시와 함께 가을맞이 한강 드론쇼·바비큐 페스타를 연다. /카카오

는 라이트쇼는 관람객들에게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25일과 26일에는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서울 바비큐 페스타가 진행된다. 캠핑 콘셉트로 꾸며진 현장에는 대형 라이언과 춘식이 조형물, 포토존이

설치돼 시민들이 다양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팝업 부스 ‘카카오프렌즈, 서울 가을’에서는 한정판 굿즈 증정과 참여형 이벤트가 열리며, 피크닉 매트·보냉백·담요 등 가을 테마 상품도 함께 판매된다.

/최빛나 기자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미드나잇 워커스’ 참가

위메이드맥스, 유저 피드백 수집

위메이드맥스가 파블리싱하는 ‘미드나잇 워커스’가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참가해 출시 전 글로벌 유저 피드백 수집에 나선다.

위메이드맥스는원웨이티켓스튜디오

가 개발 중인 PC PvPvE 엑스트랙션 신작 ‘미드나잇 워커스’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출전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팀 넥스트 페스트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이 매년 개최하는 온라인 신작 소개 행사로, 이용자들이 정식 출시

전 다양한 게임의 데모 버전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이벤트다.

‘미드나잇 워커스’는 오는 11월 21일 스팀 오픈 액세스(앞서 해보기)를 앞두고 이번 페스트를 통해 최종 점검에 나선다. 이번 데모 버전은 지난 3차 글로벌 테스트와 게임스컴에서 선보인 빌드에서 개선된 최신 버전으로, 좀비 베리메이션 확장 등 전반적인 플레이 편의성이 강화됐다.

/최빛나 기자

크래프톤, 글로벌 크리에이터 캠페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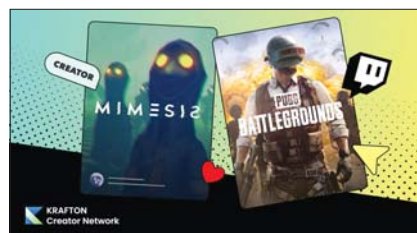
배틀그라운드·미메시스 신규 추가

크래프톤이 글로벌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KCN’에 ‘배틀그라운드’와 ‘미메시스’를 추가해 글로벌 수익형 캠페인을 전개한다.

크래프톤은 글로벌 크리에이터 협력 프로그램 ‘크래프톤 크리에이터 네트워크’에 대표작 ‘배틀그라운드’와 웰루게 임즈의 신작 ‘미메시스’를 신규 추가하고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KCN은 스트리머와 인플루언서 등 크리에이터들이 크래프톤의 게임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은 직접 참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수익형 생태계를 경험하게 된다.

대표 IP ‘배틀그라운드’ 캠페인은 오는 17일 트위치콘 개최를 기점으로 아메리카,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일부 국가에서 한정 진행된다. 참여 크리



크래프톤이 글로벌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KCN에 ‘배틀그라운드’와 ‘미메시스’를 추가해 글로벌 수익형 캠페인을 전개한다. /크래프톤

에이터는 해시태그 #PUBGxKCNsquad를 사용하고, 주 1회 이상 관련 콘텐츠를 제작·홍보해야 한다. 또한 고유 코드를 입력한 서포터가 일정 기간 내 게임 내 결제를 진행하면, 크리에이터는 캠페인 기준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다.

신규 합류한 ‘미메시스’는 AI 기술을 접목한 4인 협동 공포 게임으로, 언제든 팀원 중 한 명이 ‘미메시스’로 드러날 수 있는 설정 속에서 긴장감과 심리전을 동시에 요구한다. 미메시스 캠페인은 엘리 액세스 출시일인 27일부터 시작되며, KCN 파트너 크리에이터가 전용 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SKT, 자급제 서비스 ‘에어’ 개통 시작

출시 기념 다양한 혜택 제공

SK텔레콤은 자급제 전용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air)’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에어 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과 개통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신규 회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일 1만9000~3만 2000포인트를 지급하는 ‘보너스팩 이벤트’를 진행한다. 7GB 요금제는 월 1만 9000포인트, 15GB 요금제는 2만포인트, 30GB 요금제는 2만3000포인트, 71GB요금제는 3만포인트, 100GB·무제한 요금제는 3만2000포인트가 제공된다.

적립 포인트는 월 5000원까지 요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편의

점·올리브영 등 1000여종의 제휴 상품 구매에도 활용 가능하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이다.

또 7GB 요금제 가입자는 12개월 동안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최대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에어는 eSIM(eSIM) 개통을 지원해 즉시 개통이 가능하며, 유심(USIM) 고객은 콕배출·당일택배·일반택배 중 선택할 수 있다. 출시 기념으로 eSIM·유심 발급비와 배송비는 1회 무료다.

에어 가입 고객을 위한 만보기 이벤트도 운영된다. 앱 내 만보기 기능을 활성화하고 한달간 1000보 이상을 걸으면 1000포인트가 지급되며, 최대 4개월 연속 참여 시 총 1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LG U+, 대전 관광객 대상 프로모션 진행

대흥동 일대 상생 빵집 12곳 참여

LG유플러스는 대전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상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대흥동 일대의 상생 빵집 12곳과 ‘오늘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가 참여한다.

참여를 원하면 상생센터 대흥점을 방문해 LG유플러스의 AI 통화 앱 ‘익시오’ 공식 영상을 시청하거나 앱을 설치한 뒤, 현장 직원에게 인증하면 된다. 익시오는 통화 녹음·요약 기능과 보이스 피싱 탐지 기능을 갖춘 AI 기반 통화서

비스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빵보관소 4시간 무료 이용권과 상생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권 2장이 제공된다. 쿠폰은 현장 QR코드를 통해 ‘빵모았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수령은 11월 2일까지, 사용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빵지순례 관광객을 위한 스탬프 투어도 운영한다. 참여자는 12개 상생 매장을 방문해 비치된 QR코드로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결제 없이 방문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스탬프 3개 이상을 모으면 서울우유 미니팩 1개를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 상권과 협력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역맞춤형 프로모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